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세션 9, 언약, 구약과 신약 , 1부

© 2024 데이브 매튜슨 및 테드 힐드브란트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세션 9, 언약, 구약과 신약, 1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개념을 소개했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구약의 언약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들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질문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언약이 있는지 여부였고, 학자들은 언약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했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리트 나 언약이라는 단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언약의 여러 특징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듯하거나, 언약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여러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선, 9장 후반에 나오는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앞서 이미 살펴봤듯이, 창세기 9장의 홍수 이야기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원래의 창조 사이에는 여러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은 일종의 새로운 창조 또는 첫 번째 창조의 갱신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9장과 창세기 1, 2장의 연관성은 노아와의 언약이 창세기 1, 2장에서 맺은 언약의 갱신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일부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의 주권적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또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에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내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과 26장과 27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하늘의 새가 가축과 모든 들짐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십시오. 그런 다음 2장 15절과 그 다음 15절과 16절에서 주 하나님은 그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에서 일하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명령에 대한 언급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십시오. 마찬가지로 2장 17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말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후기 언약 관계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의 관계는 적어도 언약적 유형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몇 가지 단점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언약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의 관계에 이미 존재하는 후기 언약 관계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다음 중단점은 노아와 맺은 언약,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와 맺은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다른 언약의 대부분이 주로 이스라엘 민족과 맺어지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와의 언약은 모든 인류와 맺은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 특히 9장과의 몇 가지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빠지고 마른 땅이 솟아오르는 것에 대한 언급. 우리는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번성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이제 노아에게 반복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번성하고 수가 많아지고 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하여,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번성하고 그 위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후손들과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 새와 가축 등,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나는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다시는 모든 생명체가 홍수로 멸망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2절부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횃수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위한 언약을 세운다. 15절, 나는 나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16절,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일종의 언약의 표징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종류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 명령 또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재확인하는 것인 듯합니다. 모든 창조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언약이라면, 우리는 언약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언약은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언약이 있다면. 하지만 최소한 노아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물과 인간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 번 확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을 구속 언약의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과의 원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과 언약적 유형의 관계를 수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그 관계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 자신의 헌신을 재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창조와 인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재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시작으로 자신의 백성과 맺기 시작할 구속 언약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살펴볼 다음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에서도 묘사되고 확립되고 발전된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데려가려는 의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줄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라. 우리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줄 땅을 보았고,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을 언약을 통해 그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한다. 그 결과로, 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고 그를 축복할 것이다.

결국,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와 모든 창조물에 대한 헌신을 표현한 노아의 언약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아담 유형의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제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이브가 해야 했던 일, 즉 온 지구를 채우고, 번성하고, 온 지구를 채우는 일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성취될 것이며, 그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나 추방되었을 때 잃었던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으로, 동산으로, 낙원으로, 첫 번째 창조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전반에 걸쳐 언급된 아브라함의 씨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곳인데, 아마도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여자의 씨가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씨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와 맺은 언약이 여자의 씨가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어떻게 짓밟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자의 씨를 통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특정한 씨, 즉 아브라함과 그의 씨 또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원래의 창조와 연결됩니다.

Wellum 의 책인 Kingdom Through Covenant에 빚지고 있지만 , 그들은 적어도 아브라함 언약의 구조에서 네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 또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언약의

핵심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주도권을 잡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실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서처럼 말입니다.

셋째, 언약은 할례의 표징을 통해 확증됩니다(창세기 17장).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의 네 번째 요소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응답하고, 언약은 맹세로 확증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언약의 모든 요소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전반에 걸쳐 발견됩니다.

요약하자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구원 계획을 이행하는 수단 또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과의 원래 의도된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이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서 다시 그 관계에 대한 그의 헌신을 확증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원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의 구원 계획을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다음 주요 언약은 모세 언약,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과 그 다음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이제 다시 다른 언약, 즉 노아 언약, 노아의 언약, 또는 창조 언약과 다르거나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다루실 구체적인 수단입니다. 다시 한 번, Scott Hafeman¹⁰ Central Themes in Biblical Theology에 쓴 그의 장에서 인용하자면, 그는 타락하기 전 창조에 근거한 인류와의 하나님의 원래 언약 관계가 모세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모두와 구속의 행위로 확립되었다고 말합니다.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의 언약에 대한 기사는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의 민족적 후손인 이스라엘의 보존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에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여러 본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과 맺을 언약 관계에 대한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19장의 처음 여섯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3월 초하루에,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왔습니다. 그들이 레피딴에서 출발한 후,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들어갔고, 이스라엘은 거기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주님은 그를 산에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그를 산으로 부르시며, 이것이 야곱의 후손에게 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의 연결 고리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판결에 대해 네가 말해야 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할 일이다. 너희는 내가 애굽에 행한 일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로 데려온 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것에 대한 관념을 주목하라.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온전히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온 땅이 내 것이기는 하지만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할 말이다.

그러므로 20장 십계명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과 계명을 지키기 위한 조항과 공급의 주제를 주목하십시오.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는 주제를 주목하십시오. 나중에 우리는 모세의 언약 조항 전체에서 저주를 발견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

우리는 또한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에서 언약 공식을 이미 언급했고,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의 다른 여러 구절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 주요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 하 7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언급되는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역대상 17장과 다른 시편들 중에서 시편 89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는 다윗 언약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7장부터 다윗이 특정한 아들이 영원히 그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왕좌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핵심은 다윗을 통해 올 영원한 왕권입니다. 보통은 그 본문을 가리키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도,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하지만 7:14에서 언약 공식을 주목하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언어의 핵심인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언어에 주목하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읽어보면 아브라함 언약과의 연결 고리 중 일부를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의 또 다른 방식이며, 아브라함 언약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7장과 14절만 읽지만, 이 더 넓은 맥락에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가지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야 할 말이니, 여호와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여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내가 너를 목초지에서, 양 떼를 치던 곳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에서 내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습니다. 네 앞에서 네 모든 원수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네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그리고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반영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장소로 그들을 심어줄 것이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를 마련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어 그들만의 집을 갖게 하고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처음처럼 그들을 더 이상 압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하며 끝맺는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에게서 안식을 주리라.

주께서 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너희에게 선언하신다. 너희의 날이 다하여 조상들과 함께 쉬면, 나는 너희의 씨나 자손을 일으켜 너희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살과 피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이름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라. 그들에게 자리, 씨, 또는 후손을 주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언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한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특정한 씨, 다윗의 씨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냥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들을 성취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둘 다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두 언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결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다윗 언약이 모세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성취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창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로부터 안식을 얻을 곳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에서 누리셨던 안식과 흥미로운 연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실 때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나 창조물과 연결됩니다. 더욱이, 이 전체에서 통치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사실 12절로 돌아가서, 나는 네 후손을 일으켜 네 혈육을 이어받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자이다.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제, 창세기 1장과의 연관성을 보십니까?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1장, 26장, 27장 에서 주신 명령의 일부는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잠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고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통치를 퍼뜨려야 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그의 통치를 대표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방식이, 다윗의 통치자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왕좌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결국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의 왕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살펴본 후기 시편 중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면, 기억하시겠지만, 시편 2장, 시편 89편에서, 결국 다윗의 아들, 메시아 왕은 땅 끝까지 그의 소유로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왕을 그의 소유로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함으로써 실패한 그의 목적을 결국 성취하실 방법은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결국 그 통치를 땅 끝까지 확장하고, 온 땅을 그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다윗의 통치자를 통해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좌와 그의 왕국을 세우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볼 수 있는 또 다른 본문, 이사야 9장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9장에는 또 다른 다윗의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자주 읽거나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발견하는 구절 중 하나이지만, 확실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정부는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조연자, 전능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의 통치와 평화의 위대함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좌에서 그의 왕국을 다스리고, 정의와 의로움으로 그것을 세우고 지탱할 것입니다.

그 때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다윗이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아마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창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부통령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다시 한번 성취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다윗 언약이 하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씨,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져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새 언약에 이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죄악성 문제인데, 이는 모세 언약과 모세 언약 하에서 확립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분명히 밝혔듯이, 문제는 모세 언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죄악, 반항, 그리고 완악함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새 언약은 그것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롭게 된 마음과 성령의 공급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공급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이 지켜지고 옛 언약처럼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히브리서를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핵심은 옛 언약이 궁극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죄와 완악함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새 언약은 이제 새 마음과 성령의 공급을 통해 그것을 처리합니다.

구약에서 새 언약을 언급하는 주요 본문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은 신약에서 나중에 인용되는 구절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읽힙니다. 그 날들이 오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유배에서 회복시키실 때를 기대하며, 예레미야는 그 날들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왕국은 북 이스라엘 왕국과 남 유다 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 모세와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을 때, 그들은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언약의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그 때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언약 공식이 나온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을 가르치거나 서로에게 “아니, 주님이시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나는 그들의 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죄를 단호하게 다루실 새로운 언약 관계에 대한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에 그의 법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언약 관계를 깨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같은 새로운 언약을 발견합니다.

저는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의 수립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요엘 2장과 같은 다른 선지자들의 본문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인용됩니다. 하지만 에스겔 36장에서는 26절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36장 2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나가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본토로 다시 데려오리라. 다시 말해서, 유배에서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맥락에서.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 너희를 깨끗이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에서 깨끗이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의 죄 사함에 대한 언어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내가 너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따르고 내 율법을 지키는 데 주의하도록 너희를 감동시키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 살게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언약 공식이 나옵니다. 또한 에스겔 37장도 또 다른 공식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언약 언어가 곳곳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런 다음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뒤로 돌아가서 2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언약이 성취되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율법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는 데 주의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아버지 야곱에게 준 땅, 곧 네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서 살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의 자녀가 영원히 거기 살 것이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언약 언어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을 세우고 그들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과의 연결을 주목하고, 나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영원히 두겠다. 내 거처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들은 분명히 언약, 갱신된 언약, 새 언약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맺으실 언약인데, 아마도 저는 그것이 다른 언약들에 의해 수립된 관계,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수립하신 관계를 성취하고 실현시킬 포괄적인 언약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세 언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새로운 언약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의 핵심에는 언약 공식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은 37절과 같고,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한 언약이 성전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에서 표현된 포괄적인 언약 관계가 이제 새 언약에서 갱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실현되었고 새로운 언약의 수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일련의 별개의 언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지만, 대신, 대신 이러한 언약들은 마치 맨 아래에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는 플랫폼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서로를 기반으로 하여 일종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언약이 있는데, 이를 통해 아브라함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원래 언약 관계가 마침내 실현되고 마침내 성취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언약과 그것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목적이 하나님 과 관련하여 어떻게 기능하는지 ,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려는 그의 의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매우 간략한, 아마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략한 개요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러한 언약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실현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와 에스겔, 특히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언약을 세우실 의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특히 에스겔에서 다윗 언약에 대한 언급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가져오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러한 언약들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들 중 일부를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러한 언약들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과 성취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통해 걸러집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확장하여, 그 언약은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백성에게서 성취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보았고 우리가 살펴본 다른 주제들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듯이, 언약이 이미, 그러나 아직은 실현된 종말론의 계획에 따라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취된 언약의 표지, 약속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인격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새로운 창조에서 그 언약들의 완성을 기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것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이미 수립하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그의 백성과 독자들이 이미 그것에 참여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들이 죄 사함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죄 사함은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용서와 죄 사함을 가져오신다는 사실은 새 언약이 이미 현실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시록 21장에서 새 창조를 발견할까요? 왜 요한이 그곳에서 새 언약 공식을 인용했을까요?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새 창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완성된 관계에서 성취될 아직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언약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그의 백성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둘째, 언약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종말론적 긴장에 따라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창조부터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언약 창조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 당시에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려는 하나님의 의도의 시작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언약의 여러 요소를 발견했으므로, 저는 거기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당시에 아담과 이브와 맺은 하나님의 관계의 의도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간단히 관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창조 때 예수 자신이 아담과 이브와 맺은 언약은 예수 자신이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함으로써 새로운 아담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가지 예, 분명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필요성을 옹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첫 사람 아담은 생명, 곧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취소하는 의미로 오신 분으로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주는 데 실패했고 관계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결과를 뒤집고 첫 번째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하러 오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전체 구절을 읽지 않겠지만, 충분히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5장에서 12절부터 시작하여 실제로 이 장의 끝까지 설정한 명확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전체를 읽지 않겠지만, 아담이 행한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행하신 것 사이에 매우 명확한 대조 비교 대조가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몇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비교를 중단합니다. 그는 13절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시대부터 모세의 시대까지 죽음이 통치합니다. 아담이 한 것처럼 명령을 어기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죽음이 통치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아담이 아직 오지 않은 누군가의 더 큰 무언가의 유형이라고 분명히 암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어휘를 사용하면, 두 번째 아담의 유형, 첫 번째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와서 할 누군가입니다. 바울은 그 은사가 범죄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더 넘쳤겠느냐. 하나님의 선물은 한 사람의 죄 의 결과와 비교할 수 없느니라 . 심판은 한 사람의 죄에 이어 정죄를 가져왔지만, 선물은 많은 범죄에 이어 의롭다 함을 가져왔느니라. 그리고 18절로 넘어갈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온 것과 같으니라 .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가지 의로운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습니다(19절).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때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타락의 결과를 극복하고 역전시킨다고 말하기 위해 이 글을 읽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로마서 5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한 일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순종의 행위를 제공하고, 생명을 가져오고, 창조물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두 번째 아담을 통해, 그리고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그의 백성을 통해 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서서, 이것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다면, 저는 우리가 이미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콜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저는 뒤로 돌아가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자아를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저는 이전에 제안했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옛 자아는 아마도 아담 안에 있는 제가 누구인지,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권위 아래 있는 제가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옛 자아와 그 관행을 벗어버렸습니다(10절). 그리고 여러분은 새 자아를 입었습니다.

즉, 새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나, 그리스도의 통제와 권위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입니다. 여러분은 새 자아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아담의 언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을 제공하고, 생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펴뜨림으로써 아담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의 언어로 그와 연합된 그의 백성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콜로새서 1:15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형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자아,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께 속한 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성취되는데, 그는 아담이 망친 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확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 안에서 두 번째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창조 때 언약이 있었다고 말하든 그렇지 않든, 창조는 확실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통해 아담에 대한 그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은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할 다음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최초의 구속적 언약입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모든 언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참된 씨와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아주 시작 부분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역할을 마태복음 2장에서 시작하여 동방박사들, 즉 외국인으로 온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시작하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와서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저자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로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알리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축복,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이 이제 모든 나라로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그의 추종자들에게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것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윗의 참 아들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언급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모세 언약과 관련하여 이 본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배제하고 구원의 약속을 모세 언약에만 연관시키고자 했던 유대교도들과 대조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의 일부는 아브라함 언약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지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해석의 움직임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언급과 관련하여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의 언어를

집어 들고 그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립니다. 3장에서 시작하여 7절과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하려는 의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군요.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16절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서 씨에 대하여, 즉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씨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이신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해석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든, 내가 말하고 싶은 유일한 요점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약속, 씨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본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참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민족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구약 언약과 그것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새 언약에 할애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우리가 말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사람들 자신에게서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일 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도 결국 아브라함의 참된 씨가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미 말했듯이, 바울은 그들을 그의 독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다음 섹션에서는 다른 성경적 언약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그리스도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언약, 구약과 신약, 1부입니다.